

사회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장애아동의 인성발달*

정 은**

영남대학교 교수

《요 약》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회신경과학은 인간발달의 핵심을 인간의 사회적 뇌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인간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속에서 몸과 마음, 정신을 형성해 나가는 철저히 사회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장애아동의 인성발달과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장애아동 인성 형성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연구결과 우리가 장애아동과의 만남에서 일상적으로 무감하게 지나쳐 버리는 무수한 찰나들이 이들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인 지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의 장애인 배제 욕구가 이들을 사회적 안락사로까지 내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회신경과학은 인간과 장애에 대한 보다 인간과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학문적 틀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신경과학, 사회적 뇌, 신경형성, 발달적 찰나, 의사소통

I. 서론

인간은 인간, 즉 타인 안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인간으로 반영하기 시작한다(Marx; Jantzen, 1986: 96 재인용).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인간적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고 이렇게 만나진, 맞닥뜨려진 사람들은 서로 대화한다. 여기서 대화는 각기 독립된 유기체로서 인간이 서로에 대해 반응하는 관계 즉 '느낌'을 갖는 것에 기초한 발화적 소통, 이야기 나눔을 말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감의 실질적 토대가 되는 인간의 감성(즉 인간을 포함하여 세상을 느끼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듯 인간 실존의 기본 양식(Modus)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M. Buber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존재의 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cpe21@hanmail.net)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삶의 국면은 서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항상 갓난아기와 같이 이전에는 없었고, 절대로 다시 볼 수도 없는 새로운 얼굴을 가진다. 그래서 삶은 당신에게,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반응을 요구한다. 과거에 있었던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감, 책임감, 곧 바로 당신을 요구한다”(Rosenberg, 2007: 139-140 재인용). 즉 직접적인 접촉(대면)에 있어서 발생하는 내지 요구되는 반응은 결코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시(청)각적 접촉을 통해 맞닥뜨리게 되는 상대의 ‘표정’은 ‘나’의 자발적 의무로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즉 응답의 윤리)을 요구하는 것이다(Levinas; 변순용, 2000; 김연숙, 2002; 정은, 2006: 564 참고).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은 삶의 매 순간에 함께했던 타인들의 공감 형식 및 내용의 질에 의해 구현되는 부단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인간의 다양한 역사적 가능성들이 언제 삶에 있어 실재가 되는가 즉 구체적인 발달의 내용으로 갖추어지는가 하는 것은 교육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Vygotsky, 2001a: 104)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회신경과학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먼저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성에 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의 신경계가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뇌와 뇌 사이에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끈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뇌 - 즉 신체 - 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말해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상태까지 규정하는 것이다(Goleman, 2006: 16-17). 따라서 사회적 뇌를 가진 우리가 서로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맺는 그 찰나이다(Goleman, 2006 아울러 Cheong, 2002 참고). 사회신경과학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찰나가, 즉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해당 개인의 발달에 대해 갖는 결정적 영향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사회심리적 과정(예를 들어 정서, 사람지각, 사회적 판단, 태도 등)의 발현에 관여되는 뇌의 영역을 확인하려는 이른바 국지화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신경과학 연구는 간단히 “신경계와 내분비계, 그리고 면역체계들이 사회문화적 과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최훈석, 2006: 88). 즉 신경심리학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작업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인간발달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회적 뇌’(Lurija, 1995; Jantzen, 2004; Goleman, 2006; Cheong, 2002)라는 관점에서 인간발달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성 형성 문제와 연결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장애아동 인성발달과정에 비추어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논제 선정의 구체적인 배경은 장애인(아동)과 관련해 우리가 도처에서 접하게 되는 일련의 호소들, 다름 아닌 ‘같이 놀고/공부하고/일하고 싶어도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 곤란들이다. 물론 이러한 미성숙된 사

회성의 문제는 결코 장애인에게서만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Vygotsky가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인성의 문제는 장애, 비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인성발달구조 및 유형과 관계된 것이다(Vygotsky, 2001a: 97 아울러 정은, 2007d).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신경과학적 입장에서 장애아동의 인성발달 문제를 진중하게 다루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 경험, 즉 사회적 접촉 제한성 - 아울러 이 가운데 발생하는 감정의 왜곡 경험 - 이 그들의 발달, 삶의 과정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학문적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사고성이다. 즉 좀 더 사회적일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다(Goleman, 2006: 92-93). 또한 Gardner(2004)와 Goleman(2006)은 지능(IQ)과 사회성(사회지능)이 상호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정인지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듯 지능이 사회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많은 장애인(아동)이 겪고 있는 사회성 미성숙으로 인한 삶 소외의 실체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사회신경과학적 관점을 빌어 장애아동의 인성발달과정을 되짚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상술한 문제제기 속에서 본 연구가 다루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먼저 사회적 뇌를 인간발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회신경과학은 인간과 장애의 발달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연구문제이다(II장).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우선 인간발달에 대한 사회신경과학적 이해를 다룰 것이며(II-1), 이에 기초하여 다음으로는 장애예방이라는 사회의 암묵적(그러나 적극적인) 요구 맥락에서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살펴보고(II-2), 마지막으로 안락사 논의에 대한 비판적 조망을 통하여 우생학에서 사회적 안락사까지 연결되는 고리들을 살펴볼 것이다(II-3).

그리고 두 번째 연구문제는 장애아동의 인성발달 논의에 있어서 사회신경과학적 접근이 어떤 면에서 유익하고 타당한가를 살피는 것이다(III장). 여기서는 앞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장애현장으로부터 오는 호소들, 즉 장애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 곤란들의 실체에 대해 진중하게 접근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장애아동 인성발달과정의 근본 구조 속에서 살피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렇듯 주요한 몇 가지 내용들에 집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아동 인성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인간과학적인 접근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사회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살펴 본 인간과 장애의 발달

1. 인간발달에 대한 사회신경과학적 이해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 체계는 피부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몸 안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신호에 반응하기 위해 주로 몸의 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뇌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신경 메커니즘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우리의 사회적 뇌는 서로 연결된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은 ‘신경형성’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뇌를 다른 상태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의 중요한 인간관계가 우리 뇌를 어떤 특정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몰아가면, 서서히 어떤 특정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실제로 수년간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 때문에 화를 내거나 하는 것처럼 특정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바뀌게 된다(Goleman, 2006: 25-26; Miller, 2005, 2006; 정은, 2006).

본 절에서는 이처럼 끊임없는 감정의 소통 한 가운데 놓인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몇 가지 영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편도(admygdala)에 대해 살펴보겠다.

편도는 피질아래 중뇌에 좌우 한 쌍으로 위치해 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특히 두려움이 편도에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러한 편도가 감정의 전염을 담당하는 뇌의 체계 가운데 일부로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아주 최근에 밝혀진 것이다. 즉 편도는 뇌에 장치된 레이더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은 편도를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다(Goleman, 2006: 32-34; 아울러 편도의 기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eDoux, 2005 참고).

그리고 이와 함께 인간의 사회적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이다. 인간의 뇌에는 여러 거울신경세포가 있는데(Goleman, 2006: 72) 거울신경세포는 말 그대로 거울처럼 작용하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흉내 내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같은 책: 70). 바꾸어 말해 “거울신경세포는 상대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을 읽는 순간, 상대로 하여금 곧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같은 책: 74). 즉 거울신경세포는 두 사람(이상)의 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양식이 바로 감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의 뇌는 “자신의 감정을 느낄 때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때, 거의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인데(Ochsner et al., 2004 참고, Goleman, 2006: 95) 이러한 이유로 개개인의 다양한 상상능력 및 자기성찰성은 그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인성발달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초가 된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은 사회적이며, 이렇게 보았을 때 “인간의 사회적 능력은 거울신경세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같은 책: 72). 또한 감정이 변하면 사회적 인식도 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것을 다루는 뇌의 영역은 감정중추와 겹치는 것처럼 두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같은 책: 135, 자세한 내용은 Parkinson, 1996, Norris et al., 2004 참고).

정리하자면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그 생존을 유지하고 보다 인간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인간 몸의 다양한 신경계가 그 스스로의 사회적 속성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조건, 즉 타인과의 직접적 접촉이다. 따라서 인간 간의 (사회적) 감정의 교류, 이를 통한 사회적 뇌의 성숙은 결국 구체적인 만남 (의 양과 질)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시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눈 맞춤(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청각적 접촉) 그리고 후각적 경험이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안와전두피질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면했을 때 단순 만남에서 공감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뇌의 안와전두 영역 덕이다. 우리의 눈에는 신경을 투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이입과 감정의 공유를 담당하는 주요한 뇌 구조인 전전두엽 피질의 안와전두 영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시선을 맞추는 것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안와전두 영역은 눈 맞춤과 같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고받는 신호에 민감하며 따라서 이 영역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안와 뒤쪽 위에 위치한 안와전두 피질(orbitofrontal cortex)은 감정중추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고 동시에 사고중추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신경피질을 매개로 뇌의 주요한 세 영역, 즉 피질(혹은 ‘생각하는 뇌’), 편도(여러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지점), 뇌간(‘쾌충류뇌’라고 불리며 자동 반응을 담당하는 곳)을 직접 연결한다(Goleman, 2006: 106). 안와전두 피질의 회로는 또한 “우리의 사회생활에 ‘쾌락적 가치’를 부여해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어떤 사람을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을 몹시 좋아하는지 등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사람의 체취와 같은 사회적 심미성을 평가하기도 한다. 체취는 어떤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원초적 기호다”(같은 책: 107).

결론적으로 인간은 타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상대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의 반응 같은 것을 통해 자신이 대화에서 궤도를 벗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상대를 (직접) 볼 수 없는 인터넷과 같은 현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타인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안와전두피질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같은 책: 123). 이러한 맥락

에서 덧붙여 밀그램의 실험(Slater, 2007: 49-94 참고) 역시 시각적 소외상황 하의 극단적인 폭력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와전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방추상 세포가 우리 인간 종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포유류의 뇌에는 방추상 세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간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원숭이에 비해 무려 수천 배나 많은 방추상 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방추상 세포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전두대 피질 영역인데, 이 영역 역시 사회생활에서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 영상 연구결과를 보면 대인적 인지력이 좋은 사람의 경우 전두대 피질이 폭넓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Goleman, 2006: 110-111 참고).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다양한 기능 즉 정서, 지능, 기억 심지어는 의지 자체와 같은 고등 기능도 전두엽의 공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Russell, 1998: 71). 바꾸어 말해 이러한 연구동향은 인간의 피질에서 상당히 넓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매우 늦게까지(10대 후반, 어떤 학자는 20대 초반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Palladino, 1999; Hartmann 2005; Jergen, 2005) 발달해가는 전두엽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신경과학에서 인간발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회적 뇌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진정한 의사소통을 원하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뇌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사소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듣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Goleman, 2006: 97). 즉 의사소통시 중요한 것은 그 상대가 ‘느끼는 느낌’을 갖는 것, 즉 서로 ‘충분히’(많이 혹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이야기 나누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구체적인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이토 미치오, 2006 참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의 논리에서 시작되는 소통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한 책임감 있는 대화 즉 너의 문제(주제)와 나의 문제(주제)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주제)이기에 시작하게 되는 소통이어야 하고 이럴 때 비로소 대화 참여자들 모두 온전한 대화 상황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자기 성찰성은 사회적 뇌의 본질을 발현시키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2. 장애예방 논의에 비추어 본 특수교육 정체성에 대한 숙고

사람은 사람을 만나 사람이 되고 이것은 바꾸어 말해 인간의 몸과 정신이 사회적 소통을 통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인간발달에 대한 이러한 사회신경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장애예방이라는 사회맥락 속에서 수행되고 있는

특수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해 보려고 한다.

지난 2007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장애인한국대회에서 정은(2007c)이 문제제기한 바 있듯이 장애인의 태어날 권리는 이제껏 우생학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는 ‘장애예방’이라는 관념 아래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에 살아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예방 논의 장면은 ‘당연히’ 반인권적이다(단 이러한 문제제기가 낙태찬반 논의와 여과 없이 직결되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장애가 질병과 혼용되어 이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예방은 의사(pseudo) 건강권 혹은 행복권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 왔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세련되고 뚜렷해진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예: 즐기세포 논쟁). 그런데 정작 - 이것이 천박한 차원에서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장애예방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답은 간단하다.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하고(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가능해야 할 이유도 사실 없다. 왜냐하면 다양한 몸은 그 다양성의 양식과 상관없이 스스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Cheong, 2002; Jantzen, 2003; 정은, 2007f).

모든 이미 태어난 인간(아기)은 충분히 태어날만한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고, 또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특히 타인과의 대화능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학계의 연구결과이다(Trevarthen & Aitken, 1994; Spitz, 1976; Lotman, 1990; Jantzen, 1994). 따라서 ‘장애’라는 것은 생물학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 구성물이고 동시에 소위 ‘완벽한 몸’을 지향하는 의학적, 과학적 기술의 수준은 사실상 엄청난 한계를 지닌 인공학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Edelman(1993)의 신경진화이론(Neuronaler Darwinismus) 등 현대 다양한 이론들은 인간에 대한 그 어떤 유전학적 결정론도 수용될 수 없음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결국 장애예방은 편협하고 왜곡된 인간상에서 비롯된 장애관에 기초한 의료적, 사회적 한계를 드러내는 용어일 따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체가 인간의 삶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오도되는 사회적 허상의 기능이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삶의 고달픔과 기쁨은 인간 삶 자체의 문제이지 ‘장애’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장애’와 고통을 함께 놓고 보는 시각에 대해 우리는 반문해야만 한다. 그 고통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 절대 그 고통은 어떤 인간 몸 자체에 기인하지 않는다. 관계적이고 구조적인 가능성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의 ‘고통기대구조’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한진(2007: 18)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물론 장애의 부담에 대해서는 장애인인 본인으로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살 가치가 없다는 판단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모든 삶, 모든 가족, 모든 부모 자녀 관계는 기쁨뿐만 아니라 실망도 포함한다. 모든 인생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은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부담스럽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예방과 관계해 “장애아 낙태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따라서 여성의 산전관리, 아동의 예방접종, 모든 사람의 건강 증진 등과 비교되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보았을 때 “장애아 낙태는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는 사회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같은 책: 19). 흔히들 장애인에 대한 인류역사상 최악의 비윤리적인 사건으로 나치 하의 장애인대량학살을 꼽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것만도 또 과거의 것만도 아니다. (...) 그리고 그것은 낙태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인 안락사의 문제까지, 즉 장애인의 일생에 걸쳐서 재현되고 있다”(같은 책: 19). 옳은 지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예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해 우리는 그 정체성을 되짚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일 2008. 5. 26)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아동(학생)은 이제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과 더불어 의무교육으로까지 장애아동의 교육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다. 여전히 의무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하지만(정은, 2007f 참고), 이러한 변화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 부분적으로는 더욱 더 다양한 - 교육적 혜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존 세대의 선별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각기 한 인격체로 - 현재의 또 향후 사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큰 틀의 관점에서 -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성취되어야 할 성질의 사회제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회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 아이들 교육시켜 봤자’ 라는 의식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새로운 인식들이 창출되면서 기존의 이러한 일방적인 ‘선별적’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현재는 이러한 제도적 기회 균등의 법칙이 교육 영역에 있어 상당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겠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태어나보니’ 이런 저런 외모, 이런 나라, 이런 성, 이런 부모 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나’가 되는 동일한 출발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적인 사실을 생각했을 때 이미 태어나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상 서로서로 ‘같이 살아갈’ 궁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윤리철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와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또 누군가와와는 그렇지 않게 생을 꾸릴 태생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즉 사적으로(개인적으로) 어떤 이와는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또 어떤 이와는 소원하게 지내며 살아갈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즉 공적인 영역에서) 그럴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특히 그 사회에서 아직 정치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세대, 즉 모든 영유아,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는 자신의 갖가지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로부터(특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각기 처한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가져야 하고), 아울러 모든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정치경제적, 문화사회적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건강권을 지킬 권리가 있는 것이다(정은, 2007a 참고).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이 모든 이들에게 각기 사회는 마땅히 이들의 교육권을 실현시켜내야만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남’과 상관없이 인간(여기서는 어린이)이 가진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내포하는 궁극적 의미는 이들이 장차 그들이 처하게 된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건강한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학습 과정을 통해 갖가지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기술들을 익혀야만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그 어떤 사람도 출생지나 외모, 부모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해 그만큼 이 사회(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고(‘우리’의 아이들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분명한 실존적 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정은, 2007a). 하지만 이러한 실존적 진리에 대한 특수교육적 지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다음은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 오래도록 연구해 온 Alice Miller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특수교육이라는 것과는 딱히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찬찬히 고민해 보면 Miller의 이러한 논리적인 지적이 일반교육 뿐 아니라, 특수교육의 왜곡된 실제 또한 당연히 주어야 할 권리를 미리 막고 나서(예를 들어 장애예방) ‘무책임하게’ 뒷수습을 하려는 장애아동 차별에 대한 사회의 대처 현실 모두와 연관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살아 있는 뿌리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것의 자연스런 기능들을 인공적인 수단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일은 교육 현장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이의 호기심을 억압하고(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있다), 그 이후 아이가 학습에 자연스런 흥미를 잃으면 우리는 아이가 겪고 있는 학문적 어려움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지도법을 제공한다”(Miller, 2002: 165).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특수교육의 왜곡된 실제란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각 아동의 학습 잠재력을 신뢰하고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이 수행되 기보다 많은 경우 ‘분리를 위한 분리’ 과정을 통해 아이들을 ‘걸러내고’ 이후 그의 부족

한 면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장애(아동)-부정적 특수교육 현실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에 방에 '실패'된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권을 이야기하며 진행되고 있는 특수교육이 우리사회에서 갖는 정체성은 그야말로 장애아동 차별에 대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사회의 대처 방식 속에서 또다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뿌리 깊은 사회적 배제 조건 하에서 성장하게 되는 장애아동들의 인성발달과정에 대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할까.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음 절을 통해 우생학에서 사회적 안락사까지 연결되는 안락사 논의 속에 숨겨진 고리들을 들추어 보려고 한다.

3. 안락사 논의에 대한 비판적 조망

이안 다우비긴은 그의 저서 <안락사의 역사>를 통해 “안락사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못 박고 있다(이안 다우비긴, 2007: 12). 이 말은 분명 실제로 안락사(지금 현재 안락사란 환자에게 약이나 다른 수단을 제공하여 그가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같은 책: 11)가 우리 곁에서 일상적으로 행위 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의 뒤에는 안락사 역시 우리 생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즉 죽음 내지 안락사는 삶이 끝나는 지점에 불현듯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발생되고 해소되는 어떤 관계적 실체인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결국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품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아닌가(같은 책: 18).

‘안락사(euthanasia)’라는 단어는 ‘훌륭한 죽음(good death)’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17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안락사가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는데(같은 책: 10-11), 특히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제나 빠지지 않았던 병과 장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 사회의 도덕 체계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안락사의 역사는 의료 행위의 기술적 발전과 의료자의 행동 양식 변화와 함께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같은 책: 16). 이러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과정 앞에서 어디까지가 자연사 범주에, 어디부터가 인공적인 죽음, 안락사 범주에 속하는지 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안 다우비긴(같은 책: 18-19 참고)이 보고하고 있듯이 20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실생활 속에서 종종 생생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삶 안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노화와 죽음에 대해 언급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죽음의 병리적, 생물학적 중요성에 대해 너무도 무지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율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 일정

정도 무지에서 비롯된 -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이를 택하고 있다.

한편 20세기 초 개인의 자율성과 과학적 지식의 우월성을 찬양한 계몽주의 정신과 유아살해, 안락사, 조력 자살 등에 너그러웠던 기독교 이전 고대의 안락사 개념이 다시 등장함과 더불어 우생학과 다윈의 생물학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된다(같은 책: 88). 이러한 상황에서 1807년 새뮤얼 윌리엄스는 적극적 안락사를 옹호하는 한 편의 글을 내놓는데 그는 여기서 “모든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는 낡은 교리를 버리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게 된다(같은 책: 91-92). 다윈이 주장한 자연의 선택에 의한 진화론과 같은 이론들은 자연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새뮤얼 윌리엄스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다윈은 자연에 존재하는 먹이는 제한되어 있고 각 개체들은 이것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데, 이때 자연에 가장 적합한 개체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모든 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적합한’ 개체는 ‘덜 적합한’ 개체에 비해 자신의 특징을 유전을 통해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종 전체의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다윈은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다(같은 책: 95).

하지만 현대에 들어, 특히 Maturana와 Varela의 자기조직이론(Maturana & Varela, 2007)을 통해 이러한 가정은 더 이상 순수하게 받아들여 질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에서는 강자 혹은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을 뿐이며, 이때 적응은 필요의 문제이고 그것을 충족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같은 책: 133 참고). - 이런 입장에서 이들은 자연선택이라는 말 대신 자연표류(natuerliche Drifte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인간의 언어 사용 역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관점은 매우 유용하게 논의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사회성을 향상시키고자(=사회적 뇌를 계발시키고자) 이루어지는 인간들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능력과 관계를 넓히고자 애쓰는 그때그때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관계에 놓이는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즉 살아남은 이는 강자가 아니라 어찌면 약자들인 것이다. Maturana와 Varela의 주장처럼,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았을 따름이다. 다음의 사실은 또한 이러한 언어 소용에 대한 입장을 잘 뒷받침한다: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의사소통 형식이나 내용의 질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인간 이외의 다른 영장류들도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인간처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주고받고 공유하는 그러한 형식의 의사소통은 이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Breger, 1993).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인간발달사 차원에서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사교성이다’라는 말의 의미와 함께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안락사와 관계해 다윈주의와 더불어 큰 인기를 얻은 또 하나의 이론인 우생학은

“인간의 유전학적 개량을 위한 과학”이다(이안 다우비긴, 2007: 98). 정부차원에서 우생학적 개념을 실행에 옮긴 것 중 최악의 사례는 바로 “알코올 중독자, 간질병 환자, 정신병자, 정신지체자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하도록 한 1933년 독일 나치의 법률이었다. 1939년 세계 대전이 발발할 즈음에는 이 법률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한 독일인이 40만에 이르렀다”(같은 책: 99). 제2차 세계 대전 후 우생학이 점차 인기를 잃어가기 했지만 여전히 우생학은 어떤 인간의 생명이 다른 이들의 생명에 비해 더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같은 책: 100).

정리하자면 생명은 개체 개체로, 즉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독립된 단일 개체 자체로 어떤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환경과의,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사회구성체들과의 공생관계 속에서, 공진화(co-evolution)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구현되고 또 규정되는 속성을 가진 것이 생명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안락사 논쟁은 일정정도 생명성이라는 맥락에서 일탈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즉 여기서 생명성이라는 맥락에서 일탈되었다는 의미는, 안락사 논의가 생명(혹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안락사 지지 논의는 생명가치론과 별도로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와 근본적으로 얽혀 있다는 뜻이다.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생명의 가치를 논하게 된 안락사 지지 논의의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바로 20세기 초 서양의 산업화 된 국가들을 덮쳤던 정신 의학의 위기이다(같은 책: 115).

19세기 유럽과 북미대륙 전역에서는 각국 정부들이 점차 늘어나는 정신병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많은 정신 병원을 건립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신 병원의 치료 목적은 희미해져갔다. 즉 정신 병원은 끊임없이 지어졌지만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동시에 “정신과 의사들은 곧 눈부신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용 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는 것”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완치의 가능성도 없이 국가와 주의 세금으로 수용 시설에서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야하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한 냉담한 시민들은 차라리 불행한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일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게 된다(같은 책: 115-116 참고, 아울러 Foucault, 2003 참고).

“정신병자들은 특히 우생학적 측면에서는 사회 전체에 위협적인 존재였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혹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존재라는 개념이 의학적계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이안 다우비긴, 2007: 116).

또한 여기에 덧붙여 20세기 초 두드러지게 나타난 환자들에 대한 변화된 상황, 즉 만성적 질병들은 안락사 지지 의견에 또 다른 근거를 제공했다(같은 책: 116-117). 동시

에 이즈음부터 만성적 질병을 앓는 이들은 자신이 맞닥뜨린 그 상태 그대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대신 완치에 대한 환상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소외시키기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전후 독일의 심각한 빈곤과 암울한 삶은 독일인들 사이에서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과 조국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곤궁한 상황에서 왜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들에게까지 국가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살 곳을 제공해야 하느냐고 물었”고(같은 책: 133-13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안락사는 그 대상인들에 대해 “이들의 생명은 ‘단순히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른다(같은 책: 135). 초기 미국 안락사 협의회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발적 안락사 뿐 아니라 ‘치료 불가능한 저능아의 안락사’도 옹호했었고(같은 책: 144),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와 같은 생명윤리학자들은 유아 살해를 정당화한다. 영국의료협회 윤리위원회의 한 위원은 2004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기형 태아를 낙태하는 것(용인되는 관행)과 기형아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주장이 언청이처럼 순전히 미적인 이유 때문에 유아 살해를 자행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같은 책: 249).

인간의 생명, 아울러 병자,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제명 흐름들은 결국 현대로 오면서 이런 식의 ‘적합한’ 의료행위로 또 더욱 ‘세련된’ 형식 즉 사회적 안락사로 연결되고 있다. 달리 말해 본 절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생명차별적 관념들은 그들의 ‘안락사 대상’들에 대해 의료생물학적으로는 목숨을 앗아가지 않지만(못하지만) 그 수준에 버금하는 정신적 죽음, 사회적 안락사를 출생에서 교육, 이후의 사회생활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안락사란 여기서 편안하게 사회적 삶을 마감하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회적 생명활동을 차단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물론 여기서도 고통의 기준은 누구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생활인들의 목숨만 부지시켜 줄 따름인 열악한 복지시설들을 들 수 있겠다(물론 시설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설의 사회정치적 의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asaglia, 1971; Fenger, Ch. & Fenger, Th., 1994; Foucault, 2003, Goffman, 1973 참조).

앞서(II-1 참고) 우리의 중요한 인간관계가 우리 뇌를 어떤 특정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몰아가면, 서서히 어떤 특정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수년간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 때문에 화를 내거나 하는 것처럼 특정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사람의 뇌는 바

뀌게 된다. 장애예방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렇듯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장애인 배제 욕구는 결국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아동(성인)들에게 사회적 안락사를 종용하는 기본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한 번 성찰해 보자.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뇌는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들을 구조적으로 직/직접적으로 거부하는 폭력적 조건에 놓여있는 이들의 사회적 뇌는 그야말로 이미 사회적 안락사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달리 표현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책임한 배려’ 혹은 그야말로 특별한 ‘특수’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분명 발달-장애상태를 완곡하게 권유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안락사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의 발달적 찰나 - 사회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인간들이 만나는 찰나들을 뜻한다 - 에 대한 인간에 의한 인간적 긍정을 통해서만 (회복)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발달장애’에 대한 진정한 인간적 이해가 이러한 인간 몸의 본질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자신의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로 선택할 수 있는 ‘발달적 이웃’ 속에서 비로소 찾아질 수 있듯이(정은, 2007c), 장애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안락사 위협 역시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우리 각자의 새로운 인식 즉 삶과 죽음의 변증법 속에서 인간의 관계적 가치를 (재)발견할 때 생산적으로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품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인간이 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또한 당연히 ‘다른 사람의 품 속’에, 타인에게 있음을 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II. 장애아동 인성발달 논의에 대한 사회신경과학적 접근

옹달샘과 강과 바다의 성분이 각기 다르지만 이들 모두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이루고 흘러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인성이라는 것 역시 생의 매 순간의 의미 있는 기억들에 의한 변증법적 발달이다. 앞장에서의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윤리적으로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즉 “형성 과정(becoming)”이 바로 존재의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Freire, 2007: 38). 그럼 이런 맥락에서 장애-부정적 일상조건에서 진행되는 우리 사회 장애아동의 인성발달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신경과학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위협이나 도전적 상황이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는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심판 받는 느낌일 때”라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가에 대해 평가 받는 상황은 ‘사회적 자아’를 위협

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위치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 생물학적으로 강력한 잠재적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힘은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경우와 거의 대등하게 나타난다(Dickerson & Kemeny, 2004; Goleman, 2006: 349-350). 이것은 결국 앞 절(안락사 논의)에서 다룬 사회적 안락사의 실체에 대한 하나의 사실적인 설명이기도 한데, 이런 맥락에서 덧붙여 의사(pseudo)의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D. Stern의 연구는 장애아동 인성발달 과정과 관계해 흥미롭다.

“Stern(1994)은 우울증 엄마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반응 없는 대상에게서 모성을 되찾고 엄마를 소생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노력하는 유아의 반응을 기술하였다. 우울증 엄마들이 스스로 자극을 주는데 실패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아기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강요하는 방식과 비자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엄마의 노력에 대해 아기도 생기를 돋우는 상호작용으로서 똑같이 잘못된 반응으로 장단을 맞추게 된다고 하였다. (...) 아이는 엄마의 표상이 아이에게 왜곡된 채로 전달된 상태에서 그 표상을 동일시한다. 이 과정을 투사적 동일시로 볼 수 있으며, 결국 타인과 잘못 함께 사는 방식으로 발전한다”(Fonagy, 2005: 180).

즉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반응만 해주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물론 무반응보다는 어떻게든 반응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인간적이다). 위에 기술된 내용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감정 왜곡이 결국 자라면서 사회의 다른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례를 단순히 우울증 엄마와 함께 사는 법을 익혀가는 아이의 경우로만 받아들이 수는 없는 것 같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정, 학교 등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구성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나가고 있는 장애아동 대부분의 일상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해 부적절한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라서 ‘충분히 사교성이 있음에도(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너무나 사회적 감각이 떨어지는 행동’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이런 경우 주변인들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도대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순진해서 그냥 모르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들 말이다.

최근 번역되어 출간된 <자유의 교육학>(2007)에서 Freire는 ‘배제된 사람들’의 관점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Freire, 2007: 13). 즉 인간이해에 대한 지식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의사소통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인간학 연구에 있어서 전제가 되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인간과의, 구체적인 해당 개인과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소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Goleman(2006: 456) 또한 “배제의 공포”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앞서 본 연구가 집중해온 주제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한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어떤 것을 다른 것과 연관 짓는 것)은 항상 그 알게 된 것을 동시에 ‘소통하는 일’(물론 삶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이다. Freire에게 있어서 이것은 곧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에 해당되는 데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고립된 행위나 고립 상태로 되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소통의 행위이다.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해는 올바른 사고의 관점에서 볼 때 전달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Freire, 2007: 43). Rosenberg(2007)가 진정한 공감(무조건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 지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비폭력 대화”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뚜렷하다. 즉 앞서 논의되었듯이, 진정한 의사소통은 정확한 정보(의사)전달에 있다기보다 상대가 나와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폭력발생 상황 혹은 그 가능성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폭력의 대상이 나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방관자(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웃 국민)들이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을 때” 폭력의 가능성은 언제나 더 커진다(Goleman, 2006: 462). 그렇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한 이제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장애아동 인성발달 과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조건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태어난 아기는 그냥 아기일 따름이다. 그런데 아기에게 표정을 주는 것은 사회이고 주변인이다. 달리 표현해, 인간에게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란 서로가 서로의 지능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정은, 2006: 573). 그리고 본 연구가 집중하고 있는 사회신경과학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바꾸어 표현해, 인간은 같이 살게끔 이 세상에 태어나며 같은 종의 구성원들과 삶을 섞을 수 있는 보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 발현 양식은 각 개인의 사회적 발달상황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Edelman, 1993; Lurija, 1995; 정은, 2007e) 인간의 뇌는 엄청난 유연성과 가소성을 가진 사회적 뇌이며 이러한 기능적, 정신적 체계로서 뇌는 해당 주체가 삶의 순간순간에 겪게 되는 체험된 현실(Vygotsky, 1994: 339, 354) 속에서 고유의 운동 양식들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결론적으로 사회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장애아동 인성발달에 접근해 보았을 때 우선 인간 생애에 대한 유전학적 결정론은 수용될 수 없는 관념적 허상이며 인간의 몸과 정신의 형성 및 발달은 처음부터(태아 때부터) 철저히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이유로 상호책임성을 가지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존재인 것이며, 인간 삶의 영역에서 서로의 삶을 긍정하고 서로의 몸에 응답하는 몫은 우리 각 개인의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과정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즉 사회적 감성이 발달될수록 인간은 더욱 인간적이 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인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타인과의 만남 속의 발달적 차나와 관계해서는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관계개방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출생은 이후 생존(생활)에 의 기대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런 점에서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장애인 배제 욕구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신경과학적 관점은 이 두 문제의 극단에 위치한 장애-인간의 태어날 권리, 나아가 이후의 성장을 위한 보다 인간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존재 긍정적, 삶 긍정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장애인의 태어날 권리가 근본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정은, 2007b) 이러한 작업과 함께 비로소 장애아동이 인성발달 과정을 통해 겪어야만 하는(했던) 갖가지 곤란들은 새로운 인식 속에서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또 회복될 것이다.

IV. 결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은 삶의 매 순간에 함께했던 타인들의 공감 형식 및 내용의 질에 의해 구현되는 부단한 과정이다. 인성발달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회신경과학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뇌를 인간 발달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장애아동의 인성형성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연구결과 인간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속에서 몸과 마음, 정신을 형성해 나가며 이것은 인간이 서로의 삶에, 발달과정에 책임이 있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존재임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삶의 과정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즉 사회적 감성이 발달될수록 인간은 더욱 인간적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장애아동과의 만남에서 무감하게 지나쳐버리는 무수한 찰나들이 이들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인 지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II-1 참고).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와 같이 적극적 장애예방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수교육(학)의 현실을 살펴보았을 때 특수교육(학)은 그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되물어 재정립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II-2 참고). 아울러 이러한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안락사 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았는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장애인 배제 욕구가 이들을 사회적 안락사로까지 내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II-3 참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에 이은 장애아동의 인성발달과정에 대한 사회신경과학적 접근은 이들의 인성발달과정이 기본적으로 매우 폭력적인 구조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론에서 문제제기했던 장애현장에서 흔히 듣게 되는 장애인 인성 발달과 관계된 현실적 곤란들 역시 바로 이러한 폭력적 의사소통 구조에 의한 관계적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III장 참고).

결론적으로 사회신경과학은 인간과 장애에 대한 보다 인간과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학문적 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숙(2002).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고양: 인간사랑.
- 사이토 미치오 지음/송태욱 옮김(2006).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서울: 삼인.
- 이안 다우비긴 지음/신윤경 옮김(2007). **안락사의 역사**. 서울: 섬돌.
- 변순용(2000). 타자의 윤리학. **국문윤리연구**, 45(2000. 12), 47-66.
- 장휘숙(1998).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은(2003). 장애아보육의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적 맥락 이해.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함께해냄** 7월 통권 제9호, 33-42.
- 정은(2006).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한 반(反)분리교육의 중요성.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7(4), 557-582.
- 정은(2007a).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아동 교육차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화교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인권센터 주최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2007. 8. 30) 주제 발표 발제문(미간행).
- 정은(2007b). **장애인의 태어날 권리에 대한 사회신경과학적 접근**.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2007. 9. 5-8). 주제 발표 발제문(미간행).
- 정은(2007c). '발달장애'에 대한 발달적 이해를 찾아서. 정은(2007). **장애, 움직이는 시선**. 대구: 먼뚝, 78-89.
- 정은(2007d). 비고츠키의 '손상학(Defectology)' 연구가 장애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 **특수교육연구**, 14(1), 59-76.
- 정은(2007e). **장애진단방법론에 있어서 “재역사화(Rehistorisierung)” 개념이 갖는 존재긍정적 의미 고찰**. 2007년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간행).
- 정은(2007f).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즈음하여. 정은(2007). **장애, 움직이는 시선**. 대구: 먼뚝, 110-119.
- 조한진(2007). 현재진행형인 장애인 차별과 억압의 역사: 장애아낙태와 관련하여. **보이스** 2007 여름호(통권 24호). 서울: 도서출판보이스, 16-19.
- 최훈석(2006). **사회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만남: 사회 신경과학의 동향과 장애 연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6, 단일호, 88-89.
- Basaglia, F.(Hrsg.)(1971). *Die negierte Institution oder die Gemeinschaft der Ausgeschlossenen*. Frankfurt(M): Suhrkamp.
- Breger, L.(1993).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홍강의, 이영식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Cheong, E.(2002). *“Schwerstbehinderte” Menschen verstehen. Zur Psychologie und Pädagogik geistig behinderter blindtaubstummer Menschen*. Butzbach-Griedel: Afra-Verl.
- Dickerson, S. & Kemeny, M.(2004). Acute Stressors and Cortisol Responses: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Synthesis of Laborator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0, 355-391.
- Edelman, G. M.(1993). *Unser Gehirn - Ein dynamisches System*. Muenchen: Piper.
- Fengler, Ch. & Fengler, Th.(1994). *Alltag in der AnstaltL wenn Sozialpsychiatrie praktisch wird*. Bonn: Psychiatrie-Verl.
- Fonagy, P.(2005). **애착이론과 정신분석**(반건호 역). 안양: 빈센트.

- Foucault, M.(2003). **광기의 역사**(이규현 옮김). 파주: 나남.
- Freire, P.(2007). **자유의 교육학**(사람대사람 옮김). 서울: 아침이슬.
- Gardner, H.(2004). **다중지능**(문용린 옮김). 파주: 김영사.
- Goffman, E.(1973). *Asyle*. Frankfurt(M): Suhrkamp.
- Goleman, D.(2006). **SQ 사회지능**(장석훈 옮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Hartmann, Th.(2005).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최기철 옮김). 서울: 미래의 창.
- Jantzen, W.(1986). Sprache, Denken und geistige Behinderung. In: Millies, R. et al.(Hesg.) *Erschwerte Kommunikation und ihre Analyse*. Hamburg: Buske, 77-107.
- Jantzen, W.(1994). *Am Anfang war der Sinn*. Marburg: BdWi.
- Jantzen, W.(2003). Neuronaler Darwinismus. Zur inneren Struktur der neurowissenschaftlichen Theorie von Gerald Edelman. *Mitteilungen der Luria-Gesellschaft 1/2003*, 21-41.
- Jantzen, W.(Hrsg.)(2004). *Gehir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erlin: ICHS.
- Jantzen, W. & Sagvodskin, V.(2006). Kritische Gespraech ueber Vygotskij. *Mitteilungen der Luria-Gesellschaft, 1(2006)*, 10-37
- Jergen, R.(2005). **리틀 몬스터 -대학교수가 된 ADHD 소년-**(조아라 & 이순 공역). 서울: 학지사.
- Lotman, J. M.(1990). Ueber die Semiosphaere. *Zeitschrift fuer Semiotik, 12(4)*, 287-305.
- LeDoux, J.(2005). **시냅스와 자아**(강봉균 옮김). 파주: 소소.
- Lurija, A. R.(1995). *Das Gehirn in Aktion*. Reinbek: Rowohlt.
- Marrone, M(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이민희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Maturana, H. R. & Varela, F. J.(2007). **삶의 나무**(최호영 옮김). 서울: 갈무리.
- Miller, A.(2002).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권혜경 옮김).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 센터.
- Miller, A.(2005). **사랑의 매는 없다**(신희민 옮김). 서울: 양철북.
- Miller, A.(2006).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신희민 옮김). 서울: 양철북.
- Norris, C. et al.(2004). The Interaction of Social and Emotional Processes in the Brai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6, no. 10*, 1819-1829.
- Ochsner, K, et al.(2004). Reflecting upon Feelings: An fMRI Study of Neural Systems Supporting the Attribution of Emotion to Self and Other.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6*, 1746-1772.
- Palladono, L. J.(1999). **에디슨 아동, 키워주고 살려주고**(문용린 옮김). 서울: 세종서적
- Parkinson, B.(1996). Emotions Are Social.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7*, 663-683.
- Rosenberg, M. B.(2007). **비폭력 대화**(캐서린 한 옮김). 서울: 바오.
- Russell, P.(1998). **마법의 베틀인 인간의 두뇌**(김유미 옮김). 서울: 교육과학사.
- Schacter, D. L. & Scarry, E.(2004). **뇌와 기억 그리고 신념의 형성**(한국신경인지기능연구회 권준수 외 11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Slater, L.(2007).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조중열 옮김). 서울: 에코의 서재.
- Spitz, R.(1976). *Vom Dialog*. Stuttgart: Ernst Klett.
- Toulmin, S.(1981). *Voraussicht und Verstehen*. Frankfurt(M.): Suhrkamp.
- Trevarthen, C. & Aitken, K. J.(1994). Brain development, infant communication, and empathy disorders: Intrinsic factors in child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597-633.
- Vygotsky, L. S.(1994). The problem of the environment. van der Veer, R. & Valsiner, J.: *The Vygotsky Reader*. Oxford: Basil Blackwell, 338-354.
- Vygotsky, L. S.(2001a). Defekt und Kompensation. In: Jantzen, W.(Hrsg.). *Jeder Mensch kann lernen - Perspektiven einer kulturhisotischen (Behinderten-)Paedagogik*. Neuwied; Berlin: Luchterhand, 88-108.

Vygotsky, L. S.(2001b). Zur Frage kompensatorischer Prozesse in der Entwicklung des geistig behinderten Kindes. In: Jantzen, W.(Hrsg.). *Jeder Mensch kann lernen - Perspektiven einer kulturhistorischen (Behinderten-)Paedagogik*. Neuwied; Berlin: Luchterhand, 109-134.

Disabled child's development of his(her) human natur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Neuroscience

Cheong, Eun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Social Neuroscience, which has actively been explored in recent days, considers human being's social brain as the essence of its development. This indicates that human being is the social being which constructs body, mind and spirit through the direct communication with others in society and therefore it is valuable to reconsider disabled child's developmental process of human na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examines disabled child's developmental process of his(her) nature with various subjects in the viewpoint of social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tacting moments with disabled child and their effects on the child's development of their humanity, which are usually overlooked in daily life, need to be recognised in a more scientific way. The results concerning the effects of contact with disabled child make it possible to infer that exclusive system of the society can possibly induce disabled people to choosing euthanasia.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ocial Neuroscience is an academic frame in which more humanistic and scientific approach to the human being and disability per se becomes possible. Hence it is suffice to say that more active studies on this subject need to be conducted.

Key Words: Social Neuroscience, Social Brain, Nerves Formation, Developmental Moment, Communication

논문 접수: 2008. 1. 28 심사 시작: 2008. 2. 15 게재 확정: 2008. 3. 19